日本語의 干涉에 대한 國語의 抵抗

국어사학회(2022.9.17.토/후2:00-4:00)
장 소 서울대/신양학술정보관(302호)
발표자 송 민

무릇 어느 한 言語가 다른 언어와 서로 接觸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경우,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言語的 干涉이 일어난다.[1] 다른 말로는 언어 간의 借用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화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왕조의 문호가 개방되자 國語와 日本語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당시의 국제적 현실은 일본이 강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어는 일본어와의 접촉이 밀접해짐에 따라 그 간섭 또한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다만 국어와 일본어의 접촉은 처음 한동안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對話에 따른 발음상의 간섭처럼 직접적인 경우보다 對譯資料를 통한 문자상의 간섭처럼 간접적인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점이 국어와 입본어의 접촉과정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의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은 특히 형태론적 층위에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나,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라면 외국어의 간섭에 대한 자국어의 내면적 抵抗力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나 고유어 중에는 비록 일시적이나마 일본어의 간섭에 맞서 抵抗을 보인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일본어는 일종의 上層(superstratum) 언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으로 국어에 일방적인 간섭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어의 간섭에 대한 국어의 저항은 마치 基層(substratum) 언어와 같은 역할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두 언어의 접촉과 간섭과정 사이에는 저항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 구체적 실상은 일본어 會話학습서인 鄭雲復의 저술, 『獨習日語正則』(廣學書舖, 1907)의 日·韓 對譯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전통적인 국어의 한자어나 일반 고유어의 경우, 일본어의 간섭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본어의 간섭에 저항을 보인 전통적 국어의 실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어의 저항은 다양한 층위에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그중 세 가지 유형을 뽑아 보기로 한다. 일본어를 기준으로 삼을 때 音讀한자어, 訓讀한자어, 接辭用 漢字形態素에 각기 나타나는 국어의 저항이 그것이다. 그 실상은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音讀 漢字語에 대한 抵抗

현대국어라면 다음에 나타나는 일본어는 어형상으로나 의미상으로 국어에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獨習日語正則』(1907)의 국어 대역문에 일본어와는 다른 어형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한동안 일본어에 저항했던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나 고유어들로 이해될 수 있다. 앞쪽이 일본어, 뒤쪽이 국어를 나타낸다.

(1) 缺勤/缺席. 一日モ 缺勤シタコトガ アリマセンカラ/ᄒᆞ로라도 缺席ᄒᆞᆫ일이 업스니(70하단).[2] 한편, 일본어 '欠席'에 국어 '缺席'으로 대응된 경우도 있다. '결석'의 '결-'에 대한 한자

1) 본고의 '接觸'(contact)이나 '干涉'(interference)이라는 용어는 Weinreich, U,(1953)에서 나왔는데, 차용과정이나 단계를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듯하여 빌려쓴 것이다. 다만, Weinreich의 언어접촉은 주로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직접적 간섭, 곧 음성·음운론적 간섭이나 형태·통사론적 간섭이라는 뜻으로 쓰인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보다 훨씬 넓은 간접적 간섭, 곧 문자상의 차용까지를 동시에 나타낸다.

표기가 일본어와 국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주목된다. 欠席/缺席(141상단).

(2) 景氣/시셰. コノ頃商賣ノ景氣ハ 全ク詰リマセン/이사이 쟝사시셰는 아조 볼것업습니다(181상단-하단). 이에 대하여 일본어 '不景氣'는 국어 대역문에 '時勢, 시셰(가) 없다'로 나타난다. 不景氣デゴザイマス/時勢가 업습니다(158상단), 不景氣デス/시셰업습니다(173하단).

(3) 計畫/計策. ドウイウ計畫ヲ 立テテ 宜イカ 判リマセヌ/엇던計策을 셰우('워'의 잘못)야 됴흘는지 알슈업소(109하단). 한편, 일본어 '計畫スル'가 국어 대역문에는 '經營ᄒᆞ-'로 나타나기도 한다. 農業ヲ 計畫スル 積デ/農業을 經營ᄒᆞᆯ터인故로(185상단).

(4) 拷問/刑訊. 警察署デ 罪人ヲ 拷問スルハ 酷イデス/警察署에셔 罪人을 刑訊ᄒᆞ는것슨 殘酷ᄒᆞ오(132상단).

(5) 交際/相從, 交接. 相變ハラズ 御交際ヲ御願ヒ申シマス/죵죵 相從ᄒᆞ시기 바ᄅᆞ옵니다(42하단), 日本語ヲ 研究シテモ 始終日本人ト 交際セ子バ 言葉ガ 進ミマセヌ/日本말을 工夫ᄒᆞ야도 항상 日本사ᄅᆞᆷ과 相從을 아니ᄒᆞ면 말이 늘지아니ᄒᆞ옵니다(154상단-하단). 다만, 日本語 '交際'가 국어 대역문에서는 '交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外國人ト 始終交際シテ井ルカラ/外國人과 항샹交接ᄒᆞ니(77하단). 어느 경우에나 일본어 '交際'는 국어에 수용되기 어려운 단어였음을 보여준다.[3]

(6) 購讀者/購覽者. 本社ノ新聞ハ 大イニ 好評ヲ 得マシタカラ 購讀者ガ 日ヲ逐フテ 增加致シマス/本社新聞은 크게소문이 낫으니購覽者가逐日增加ᄒᆞ옵('니다'의 訛脫이 있는 듯)(56하단).

(7) 金融/錢政. 金融ガ 餘程 切迫シテ 居リマス/錢政이 大端히 貴ᄒᆞ옵니다(159하단), 近頃金融ハ ドウデスカ/이사이 錢政은 엇더ᄒᆞ오닛가(171하단), 金融ガ 切迫デ 商賣人ハ 非常ニ困ツテ居マス/錢政이 極難ᄒᆞ여 商賈들이 非常히 민망ᄒᆞ게 지ᄂᆡ옵니다(172상단), 金融ガ 切迫テ(デ의 잘못인 듯) 物價ガ 俄ニ 下落シマシタ/錢政이 極難ᄒᆞ야 物價가 갑작이 써러졋습니다(180하단).

(8) 當選/被薦. 衆議院ノ議員ニ 當選シマシタ/衆議院議員에 被薦되엿습니다(111상단).

(9) 道具/器具. 古イ 道具等ヲ 賣リマス/녯적 器具等屬을 파옵니다(183상단), 護身ノ道具トシテ/護身ᄒᆞ는器具로(242상단), 凡ノ道具ノ配置ハ/온갓器具의配置는(244상단-하단). 단, '汁物'로 대역된 경우도 있다. 家ノ道具ガ 多ウゴザイマス/家用汁物이 만습니다(239하단).

(10) 配達夫/分傳人. 配達夫ハ 方方 廻リナガラ 新聞ヲ 配リマス/分傳人은 各處로 도라ᄃᆞᆫ기면셔 新聞을 分傳ᄒᆞ옵니다(260하단).[4]

(11) 負債/빗. 山口ハ 負債ガ 澤山出來テ 逃タサウデス/山口는 빗을 만히 져서 逃亡ᄒᆞ얏답데다(173상단).

(12) 不具/癈人. 不具ニ ナツテ仕舞ヒマシタ/廢人이되고 마럿습니다(208하단-209상단).

(13) 費用/經費, 浮費. コノ學校ハ 費用ガ 續カナイカラ/이學校는 經費가 不足ᄒᆞ니(152상단-하), 費用ガ 易ク 成リナリマセウ/浮費가 들 들겟소(175하단).

---

2) 여기서는 일본어 '缺勤'에 대한 번역어로 국어 '缺席'이 쓰이고 있으므로 당시에는 두 단어간에 동의관계가 성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缺勤'과 '缺席'은 동의어가 아니다. '缺勤'에 대한 반의어는 '出勤'이나 '缺席'에 대한 반의어는 '出席'이기 때문이다.

3) 그 대신, '交際-'가 일본어 '付合フ[tuki-ahu]'의 대역어로 국어에 쓰인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ソノ人トハ 未ダ 付合ツテ[tuki-aq-te] 見タコトガアリマセン/그ᄉᆞᄅᆞᆷ과는 아즉 交際ᄒᆞ야본일이업습니다(65하단). '交際'가 국어에 수용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4) 같은 예문의 동사 配リマス/分傳ᄒᆞ옵니다(260하단)로 볼 때에도 일본어 '配る'[kubaru](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배달하다)를 국어에서는 '分傳'이라는 어형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非常ニ/非常히(62상단, 172상단, 227하단-228상단, 247상단), 非常이(101하단). '非常'은 본래 전통적 한자어인 데다가, 『한불』에는 '비샹ᄒᆞ다 非常', 『한영』에도 '비샹ᄒᆞ다 非常. *See* 비범ᄒᆞ다'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사형 '非常히/이'가 국어에 쓰일 수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일본어 '非常ニ'가 국어로는 '大段히(51하단, 153상단), 大端히(145하단), 딕단히(62하단, 196하단, 210하단), 대돈히(246상단), 대단히(249하단)'로, 일본어 '非常ナ'가 국어로는 '大段ᄒᆞᆫ(26상단-하단)'처럼 대역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 '非常ニ'에 대응되는 국어는 '非常히'보다 오히려 '대단히'가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15) 相談/相議, 論議. 今急ニ 相談スルコトガ アリマスカラ/지금急히相議ᄒᆞᆯ일이잇슨니(70상단), 家ヲ建テルカラ 大工樣ニ 幾 カカルカ相談シテ 見テ 下サイ/집을 짓겟스니 木手의게 얼마나 들지 相議ᄒᆞ야 보아 주시오(188상단), 相談ガ 未ダ纏リマセンカラ/議論이 아직 合一치못ᄒᆞ니(72상단).

(16) 上陸/下陸. 乘組員ハ 皆 無事ニ 上陸シマシタ/船人은 다 無事히 下陸ᄒᆞ얏습니다(255상단).

(17) 洗濯/빨ᄂᆡ. 爺ハ山ヘ柴苅ニ 婆ハ 川ヘ洗濯ニ各各 出テ 往キマシタ/녕감은 뫼에 나부븨러 로파ᄂᆞᆫ ᄂᆡ에 빨ᄂᆡᄒᆞ러 각각 나ᄀᆞᆺ습니다(39하단).

(18) 小作人/作人, 半作人. 地主ト 小作人トノ間ニ 利益分配ハ/田主와 作人間의 利益分排ᄂᆞᆫ(184하단), 朝鮮ニハ田地ヲ持ツテ居ルモノガ 小作人ヲ置イテ 收穫物ノ半分ヲ 納サセマス/朝鮮셔ᄂᆞᆫ 田地를 가진者가 半作人을 두고 收穫物의折半을 打作ᄒᆞ옵니다(186하단).

(19) 始末/경위, 結尾. 斯云フ始末デハ 時時苦情ガ 起ルカラ/이러ᄒᆞᆫ경위면 ᄆᆡ양 난쳐ᄒᆞᆫ일이싱길터이니(62상단), 當局者間ニ 色色議論ガ 起リマシテ 未ダ 始末ガ ツキマセヌ/當局者間에 各色議論이 니러나셔 아직 結尾가안낫소(113상단).

(20) 失策/낭픽. 前後ヲ 顧ズ 無闇ニ 遣ツタカラ 實際失策ヂヤ/前後를 不顧ᄒᆞ고 함부로ᄒᆞ엿스니 ᄎᆞᆷ 낭픽로다(80상단). 일본어 '失策'은 바로 다음의 (45)에 나타나는 일본어 '失敗'와 함께 국어로는 '낭픽'로 대역되었음을 보여준다.

(21) 失敗/逢敗, 良貝,[5] 랑픽. 앞에서 본대로 일본어 '失敗'가 국어에 그대로 쓰인 경우는 단 한 번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일본어와 다른 어형으로 나타난다. 儲ガ 少イ代リニ 失敗[siqpai]ガナイデセウ/남ᄂᆞᆫ거시 적은ᄃᆡ신에 逢敗가 업지오(158하단). 世間ノ 事ヲ 誤解シテヲルカラ 事每ニ 失敗[sikuzi]リマス/世間事를 誤解ᄒᆞ닛가 每事를良貝ᄒᆞ오(81하단), 商賣ニ 失敗[siqpai]シテ 身代限迄致シマシタ/쟝사에 良貝ᄒᆞ여셔 판셰음ᄭᆞ지ᄒᆞ엿습니다(174하단).[6] 商賣ニ 失敗[siqpai]致シマシタカラ/장사에 랑픽ᄒᆞ얏스니(178하단). '失敗'는 일본어에서 音讀되기도 하고 訓讀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건 국어에서는 보통 다른 어형으로 대역된 것이다. 일본어의 '失敗'가 국어에서는 오히려 '失敗'가 아닌 '逢敗, 良貝, 랑픽'로 더 많이 대역되

5) 이 단어의 경우, 『한불ᄌᆞ뎐』에 '낭픽되다 狼敗'로 나타나나, 『한영』에는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는다. '낭픽'에 대한 『한불ᄌᆞ뎐』의 한자표기가 현대국어의 '狼狽'와는 다르나, 그 뜻은 '失敗'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제어 '실픽ᄒᆞ다 失敗'에 'faire un 낭픽'라는 풀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獨習日語正則』에 나타나는 특이한 한자표기 '良貝'(또 다른 어형 '랑픽'는 '良貝'의 발음에서 나온 듯하다)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어원적으로는 전통적 한자어 '狼狽'로 소급될 것이다.

6) 다만, 똑같은 문장의 '失敗'가 국어에 그대로 옮겨진 경우도 있다. 商賣ニ 失敗シテ 身代限迄 致シマシタ/쟝사에 失敗ᄒᆞ고 판셰음ᄭᆞ지 ᄒᆞ엿습니다(180상단). 이 때의 국어에 나타나는 '失敗'는 일본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불ᄌᆞ뎐』에는 '실픽ᄒᆞ다 失敗'가 '낭픽'와 동의어로 풀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표기는 다르나 『한영ᄌᆞ뎐』에도 '실패ᄒᆞ다 失牌'가 나타나기 때문에 '失敗'를 일본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어 '失敗'가 국어에서는 오히려 '逢敗, 良貝, 랑픽' 등으로 대역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은 일본어에서 비롯된 '失敗'가 당시의 국어단어로는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일본어 '失敗'의 대역어로 쓰인 '逢敗, 良貝, 랑퍼'는 일본어의 간섭에 한동안 저항했던 국어의 전통적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失敗'가 국어에 정착된 것은 그후의 일일 것이다. 한편, 일본어에 나타나는 훈독 한자어 '狼狽[urotahe]'에 대해서는 '慌忙'이라는 국어 대역이 나타난다. 狼狽デ ドウスルコトヲ 知ラナイデス/慌忙ᄒᆞ야 엇지홀줄을 아지못ᄒᆞ오(52상단).

(22) 案內/引導. ドウカ 御案內ヲ 願ヒマス/아모죠록 引導ᄒᆞ시기를 바라옵니다(47하단).

(23) 愛嬌/嬌態. 奇麗ニ 化粧シタカラ 愛嬌ガアリマス/곱게 단장ᄒᆞ얏스니 嬌態가 잇습니다(38상단).

(24) 年末/歲末. 年末ニ ナツタカラ 各商店ノ勘定ヲ セ子バナリマセン/歲末이 되엿스니 各商店의 셰음을 아니ᄒᆞ면안되겟소(177하단), 年末ニハ 商賣人ガ 金錢ヲ 悉皆取立ルニ 極デ('テ'의 잘못인 듯) 繁忙デス/歲末에는 쟝사ᄒᆞ는ᄉᆞ름이 金錢을 다 收合ᄒᆞ는ᄃᆡ 極히 奔忙ᄒᆞ오(179하단-180상단). 다음에 나타나는 (59)의 '月末'에 대해서도 국어 대역에는 '月終'이 쓰이고 있어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 外出/出入. 祖父ハ 今年八十五歲ニナリマスガ 自由ニ 外出モ 出來マセンデス/祖父는 今年八十五歲가 되는ᄃᆡ 任意로 出入도 못ᄒᆞ옵니다(33하단-34상단, 246상단).

(26) 料理/飮食. 앞에서 본대로 일본어 '料理'가 국어에 그대로 쓰인 경우는 한 두 번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飮食'이라는 대역으로 나타난다. 料理ヲ 拵ヘル 方法ヲ/飮食 ᄆᆡᆫ드는法을(223상단), 日本料理ハ 淡泊シテ 好イデス/日本飮食은 淡泊ᄒᆞ여 됴ᄉᆞ외다(224하단), コノ料理ヲ/이飮食을(226상단), コノ料理ハ/이飮食은(234상단), 洋食ニハ/洋料理는(242상단). 결국, 일본어 '料理'의 대역어로 쓰인 '飮食'은 일본어의 간섭에 한동안 저항했던 전통적 국어단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어에서 비롯된 '料理'가 국어에 정착된 것은 그후의 일일 것이다. 단, '飮食店'(227상단)은 두 언어에 공통으로 나타나며, '料理屋/料理業'(177하단)으로 대역된 경우도 있다. 한편,『한불』에는 '뇨리 科('料'의 잘못)理 Compter et gouverner. ‖ Supputer la gain. Revenu; gain; manière de gagner sa vie',『한영』에도 '료리ᄒᆞ다 料理 Food; fare. *See* 음식, 료리ᄒᆞ다 料理 To manage; to control; to put in order'가 나타나지만 그 사이에는 의미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한불』에는 '음식을 조리한다'는 뜻이 없었는데,『한영』에 와서는 '음식'이라는 새로운 뜻이 추가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料理'의 의미변화에 대해서는 宋敏(2000) 참조.

(27) 運搬/移運. コノ荷物ヲ 荷車デ 運搬スレバ/이짐을 구루마로 移運ᄒᆞ면(175하단).

(28) 運賃/運送ᄒᆞ는浮費. 運賃ガ餘計ニ 掛リマス/運送ᄒᆞ는浮費가 더 드옵니다(160상단).

(29) 運轉/運用. 資本ノ 運轉ガ 利キマスカラ/資本의運用을 마옴ᄃᆡ로 ᄒᆞ닛가(159상단).

(30) 月末/月終. 御得意ノ 御方ニハ 勘定ヲ 月末ニ 戴キマス/단골兩班의게는 細音을 月終에밧습니다(164상단), 月末ニハ 必ズ 勘定致シマス/月終에는 期於히 셰음 ᄒᆞ옵니다(173상단).

(31) 流行スル/時體로 닙다, 時體다. 近頃ハ 日本ノ絹物モ 流行[ryukau]シマス/近來는 日本絹屬도 時體로 입습니다(161하단), 近頃ハ 縞ガ 流行[ryukau]シマス/近來는 줄잇는 것이 時體올시다(166하단). 다만, '流行[haya]ル/셩ᄒᆞ다'와 같은 대응을 보일 때도 있다. 夏ニナルト 田舍ノ方デハ 蚊遣ガ非常ニ 流行マス/녀름('름'의 잘못)이되면 村落에서는 모긔볼('불'의 잘못)이 비샹이셩ᄒᆞ옵니다(89상단).

(32) 意匠/心巧. コノ畵ハ 餘程 意匠[isyou]ヲ 凝シテ井マス/이그림은 ᄆᆡ오 心巧가 드럿습니다(263하단).[7]

---

7) '意匠'의 본래 의미는 '착상, 깊이 생각함'이었으나 명치시대에 영어 design의 역어가 되어 '장식적 고안, 취향'

(33) 利子/利息, 邊利. 利子ガ 高ク ナツテ 返濟ガ ナカナカ 難クナリマシタ/利息이 만하져셔 돈갑기가 아죠어렵게 되엿습니다(174상단), 利子ノ高イノニハ 實ニ 閉口デス/邊利가 빗싼것은 참 긔막혀('히'의 잘못인 듯)오(181상단).

(34) 一切ノ/왼갓. 米ノ外 一切ノ食料品モ/쏠밧게는 왼갓食料品이(161상단).

(35) 一割/拾一條. 折角 然オツシヤイマスカラ 一割ヲ 引キマセウ/못처럼 그러케 말숨ᄒᆞ시니 拾一條[8]減ᄒᆞ겟습니다(163하단). 二割/十分之二. 今年ハ 豐年デスカラ 例年ノ收穫高ニ 較ベテ 見マスレバ 二割程 增加致シマシタ/今年은 豊年이니 平年收穫額에 比ᄒᆞ여보면 十分之二가 增加ᄒᆞ얏습니다(186상단). 이로써 십분률을 나타내는 일본어 한자형태소 '-割'은 당시까지의 국어에 차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6) 賃銀[9]/雇價. 賃銀ハ一日 幾位デセウカ/雇價는 一日에 얼마나 되오릿가(184하단).

(37) 自由-/任意-, 임의. 洋服ヲ 着レバ 體ガ 窮屈デ 自由ニ ナリマセン/洋服을 입으면 몸이 거복ᄒᆞ여셔 任意롭지 안소(221상단), 祖父ハ 今年八十五歲ニナリマスガ 自由ニ 外出モ 出來マセンデス/祖父는 今年八十五歲가 되는ᄃᆡ 任意로 出入도 못ᄒᆞ옵니다(33하단-34상단), 官署ニ 使ハレルヨリモ 私人團體ノ方ヘ 使ハレル方ガ 樂デ 體ガ 自由デス/官廳에셔 벼슬ᄒᆞ는 것보담 私人團體에셔 從事ᄒᆞ는것이 편안ᄒᆞ고 임의럽소(97상단). 한편, 言葉ガ 分ラナクツテ 万事不自由デス/말을 몰나셔 萬事가不便ᄒᆞ니(65하단), 日本ノ着物ハ 袖ガ 廣クテ 運動スルニハ 不自由デス/日本옷은 소ᄆᆡ가 넓어셔 運動ᄒᆞ는ᄃᆡ는 不便ᄒᆞ오(221하단)처럼 일본어 '不自由'에 대해서는 '不便'으로 번역되어 있다. 造語用 한자형태소 '不-'의 대역에 대해서는 宋敏(2002) 참조. 한편, '任意'는 勝手ナ/任意의(59상단), 御隨意ニ/任意로(75하단)와 같은 대역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38) 帳簿/置簿. 後デ 公ノ 帳簿ト 引合セテ 見マセウ/잇다가 당신의置簿와 맛추아 보옵시다(173하단), コノ帳簿ヲ 見テ 精筭シテ 下サイ/이치부를 보고 精筭ᄒᆞ야주시오(182상단).

한편, '帳面/치부'와 같은 대역도 나타난다. 今ハ持合セガ ナイカラ 帳面ニ 付ケテ置イテ 吳レヌカ/지금은 가진 돈이 업스니 치부에 달어 두게(181하단).

(39) 抵當/典當. 確ナル抵當物ガ 無ケレバ 貸シマセン/確實ᄒᆞᆫ 典物이 업스면 放債아니ᄒᆞᆸ니다(159하단), 家ヲ 抵當ニ 入レテ 金ヲ 借リタ 處ガ/집을 典當 잡히고 돈을 썻더니(174상단).[10] 한편, 抵當物/典物, 典當物과 같은 대역도 나타난다. 確ナル抵當物ガ 無ケレバ/確實ᄒᆞᆫ 典物이 업스면(159하단), 抵當物/典當物. 家券 地券抔ガ 抵當物ニ成リマス/家券 地券ᄀᆞᆺ흔거시 典當物이 되옵니다(159하단-160상단).

(40) 株金/股金. 株金ハ 一株ニ 幾何デスカ/股金은 一股에 얼마오닛가(168하단). 또한, 數量詞로서의 '-株' 역시 국어에서는 '-股'로 대역되었다. 一株/一股(168하단, 169상단), 三四十株/三四十股(170하단), 七八千株/七八千股(171단).[11]

의 의미로 바뀌었다(惣郷正明・飛田良文 1986:13).

8) 이 때의 '十一條'는 문자 그대로 '10분의 1'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십일조'가 기독교에서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란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용례에 나타나는 당시의 의미는 현대 국어와 다르다. 다만, 그 한자 표기는 '十一租'가 옳으나 '十一條'로 표기되더라도 같은 뜻으로 통한다.

9) 일본어 '賃銀'은 '賃金'으로도 표기되는데 현대국어에 쓰이고 있는 '임금'은 '賃金' 쪽을 차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獨習日語正則』에는 일본어 '賃金'도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국어 대역도 '賃金'이다. 京義線ノ 賃金モ 愈々 安ク ナルサウデス/京義線의 賃金도 ᄎᆞᄎᆞ 싸진다지오(256상단). 다만, 이 때의 '賃金'은 '車費'라는 뜻이다.

10) 다만, 일본어 '質'도 국어에서는 '典當'으로 대응된다. 質/典當. 時計ヲ 質ニ入レテ 酒ヲ飲ム奴ガ アルカ/時計를 典當잡혀셔 술을먹는단말이냐(78상단), 質屋/典當局. 韓國ニ 來タ日本人ハ 質屋ヲ 設ケタ 者ガ 多イデス/韓國에 온 日本ᄉᆞ름은 典當局을 設立ᄒᆞᆫ者가 만습니다(174상단-하단).

(41) 注文/맛초-, 긔별ᄒᆞ-. 앞에서 본대로 일본어 '注文'은 국어에 단 한번 그대로 쓰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다르게 대역되었다. 活字ガ 足ラナケレバ 江川活字製作所ニ ゴ注文ナサイ/活字가 不足ᄒᆞ면 江川活字製作所에 맛초시오(176상단), 仕立ヲ 上手ニスル 所ヘ 注文シテ下サイ/바느질 잘ᄒᆞ는ᄃᆡ 맛초어 주시오(215하단), 色々ナ菓子ヲ 注文シテ 來イ/各色菓子를 맛초어오ᄂᆞ라(228하단), 東京ニ 注文シタ 品物ガ 未ダ 參リマセンガ ドウイフ譯デセウ/東京에 긔별ᄒᆞᆯ('ᄒᆞᆫ'의 잘못인 듯)物品이 아직도 오지안이ᄒᆞ니 엇지된 ᄭᆞ둙인지오(181하단). 결국, 일본어 '注文'의 대역어로 쓰인 '맛초-, 긔별ᄒᆞ-'는 일본어의 간섭에 한동안 저항했던 전통적 국어단어의 또 다른 사례가 된다. 요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注文'이 국어에 정착된 것은 그 후의 일일 것이다.

(42) 注意/操心, 조심. コノ江ハ 淺イ處ト 深イ處ガアリマスカラ 注意シテ 渡ツテ 御出ナサイ/이江은 엿흔곳과 깁흔곳이 잇스니 操心ᄒᆞ여 건너 가시오(23상단), 此頃ハ 僞造物ガ 多イデスカラ 御注意ナサイマセ/近日은 僞造物이 만흐니 操心ᄒᆞ시오(173하단-174상단), 反物ヲ 裁チマス時ニハ 寸法ト 違ハヌ樣ニ 注意シテ 下サイ/衣服次을('를'의 잘못) 마를ᄯᆡ에 見樣과 틀니지안케 操心ᄒᆞ여 주시오(215상단-하단), 斯云フ始末デハ 時時苦情ガ 起ルカラ 以後注意セ子バ イケナイヨ/이러ᄒᆞᆫ경위면 ᄆᆡ양 난쳐ᄒᆞᆫ일이싱길터이니 以後조심ᄒᆞ지아니ᄒᆞ면 안되겟네(62상단), 執務ノ時間ニ 喫烟ヲ 禁ズルト云フ 張紙ガ シテアルカラ 注意シナサイ/執務ᄒᆞ는 時間에 吸烟을 禁ᄒᆞᆫ다는 告示가 잇스니 조심ᄒᆞ시오(78하단).[12] 일본어 '注意'는 한번도 국어에 나타나지 않음이 주목된다.

(43) 遲刻シチヤ/늣게가셔는. 遲刻シチヤ 可マセン/늣게가셔는 못쓰겟소(137하단). 이때의 '遲刻'은 '학교에 늣는다'는 뜻이다.

(44) 職工/工匠. 私ノ店ニハ 職工ガ 皆 東京カラ 來テ 居リマス/우리젼에는 工匠이 다 東京셔 와잇습니다(166하단).

(45) 眞相/實狀. 其眞相ニ 立チ入ツテ 見ルト 丸デ 違ヒマス/其實狀을 킈여본즉 아조다르옵니다(76하단).

(46) 請求書/請願書. コノ請求書ニ 正當ナ理由ヲ 說明シテ 提出スルヤウニ 言ヒ付ケテ 下サイ/이請願書에 正當ᄒᆞᆫ 理由를 說明ᄒᆞ야 提出ᄒᆞ게 말ᄒᆞ야 주시오(75상단-하단).

(47) 滯在/逗留. 先日 渡韓シタ米國有名ナ 博士ハ 二ケ月間京城ニ 滯在スルサウデス/日前渡韓ᄒᆞᆫ 米國有名ᄒᆞᆫ博士는二個月間 셔울셔 逗留ᄒᆞᆫ다ᄒᆞ오(71상단).[13]

(48) 推測/斟酌. 支配人ハ 未定デスガ 多分國友タ(ダ의 잘못인 듯)ロウト 推測シマス/支配人은 未定ᄒᆞ얏스나 아마 國友인줄노 斟酌합니다(171상단).

(49) 出勤/仕進. 來月カラハ隔日ニ出勤スルサウダカラ/來月브터는 ᄒᆞ로걸너 仕進ᄒᆞᆫ다ᄒᆞ니(89상단), 每日午前十時頃出勤致シマス/每日午前열졈쯤 仕進ᄒᆞ옵니다(91상단), 每日遲ク 出勤スレバ 事務上ニ 差支ガアルカラ/每日늣게 仕進ᄒᆞ면 事務上에妨害가되니(101상단).

(50) 親切-/多情-. アノ御方ハ 何時モ 親切ニシテ吳レマス/져량반은 언제든지 多情시럽게 구옵니다(71하단).[14]

---

11) 이처럼 수량사로서의 한자형태소 '-株'는 국어에 나타나지 않으나 株式/株式(168하단), 株式會社/株式會社(177하단), 株券/株式券(159하단-160상단)과 같은 대역에서는 국어에도 '株式'이 나타난다. 수량사로서의 '-株'에 대해서는 宋敏(2002), 또는 다음에 나올 接辭用 한자형태소에 대한 저항 '-株' 항목 참조.

12) 반면, 국어의 '操心'은 일본어 '用心'의 대역어로 쓰인 경우도 있다. 氣候ノ變目デスカラ 御用心ナサイ/換節되는ᄯᆡ오니操心ᄒᆞ시오(43상단). 일본어의 경우 '用心'과 '注意'는 동의어에 속한다.

13) 이 '逗留'는 본래 '逗遛'로 표기되었다. 실제로 『龍飛御天歌』에는 "逗遛 謂軍行頓止 稽留不進也"(권四 20뒤, 제24장 註), 『한불』에는 '두류ᄒᆞ다 逗遛', 『한영』에도 '두류ᄒᆞ다 逗遛'로 나타난다.

(51) 品行/行實, 힝실, 行爲. 品行ノ惡イ 者ハ 酷ク誡メテ下サイ/行實이 ᄉᆞ나온놈은 嚴히경계ᄒᆞ야주시오(52상단), 品行ノ 惡イ 生徒ニハ 退學ヲ 命ジマス/힝실이 사나온 生徒에게ᄂᆞᆫ 退學을 命ᄒᆞ옵니다(152하단), 品行ガ 惡ケレバ 大イニ 叱ツテ下サイ/行爲가不正ᄒᆞ면 크게 ᄭᅮ지져 주시오(73상단).

(52) 必要-/必要-, 所用, 要緊-, 요긴-. コンナニ寒イ處ニハ 溫突モ必要デス/이런치운ᄭᅩᆺ('곳'의 잘못)에ᄂᆞᆫ 溫突도 必要ᄒᆞ오(44하단-45상단), 人民ガ ナケレバ 政府ヲ 設ル必要ガ アリマセヌ/人民이업스면 政府를 設立ᄒᆞᆯ必要가 업습니다(97하단). 한편, 必要ナラ/所用이되면. 是非 必要ナラ 調ベテ 上ゲマセウ/不可不所用이되면 調査ᄒᆞ야 드리리다(78상단). 단, 必要/要緊, 요긴. 木ハ 家ヲ 造タリ 色ナ 道具ヲ 拵エルニハ 一番 必要ナモノデス/나모ᄂᆞᆫ 집을 짓던지 各色 器具를 ᄆᆞᆫ드ᄂᆞᆫᄃᆡᄂᆞᆫ 第一 要緊ᄒᆞᆫ것이오(238상단), 新聞雜紙ハ 人ノ智識ヲ 發達サセルニ 必要ナモノデス/新聞雜誌ᄂᆞᆫ 사ᄅᆞᆷ의 智識을 發達케ᄒᆞᄂᆞᆫᄃᆡ 要緊ᄒᆞᆫ것이오(267상단), 鐵ハ 凡ノ器械ヤ 道具ヲ 拵ヘルノニ 必要ナモノデス/鐵은온갖器械와 器具를 ᄆᆞᆫ드ᄂᆞᆫᄃᆡ 요긴ᄒᆞᆫ것이오(204상단), 鐵道ハ 通商機關デ 一番 必要ナモノデスカラ/鐵道ᄂᆞᆫ 通商機關으로 第一 요긴ᄒᆞᆫ것이오니(252상단), 必要ナ處ハ 見易イ樣ニ 朱デ 標ヲ 付ケテ 置キナサイ/요긴ᄒᆞᆫᄃᆡᄂᆞᆫ 보기쉽게 朱墨으로 標를 ᄒᆞ여두시오(266하단). 이처럼 일본어 '必要-'가 국어에서는 오히려 '要緊-, 요긴-'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 그만큼 '必要-'라는 어형이 당시의 국어로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3) 玄關/마루. 日本ノ婦人ハ 御客樣ガ 見エルト 玄關マデ 出迎マス/日本婦人은 손님이 오시면 마루ᄭᅡ지 나와영졉ᄒᆞ옵니다(37상단).

(54) 現金/卽錢, 直錢. 現金デナケレバ 買ヘマセン/卽錢이 아니면 실('살'의 잘못)슈업소(167하단). 何卒現金ヲ 御願ヒ申シマス/아모죠록 直錢을 ᄂᆡ시오(170상단), 私ノ店デハ 現金ヂヤナケレバ 賣リマセヌ/ᄂᆡ젼에셔ᄂᆞᆫ 直錢이아니면 팔지안소(179상단).

(55) 化粧/단장. アノ女ハ 白粉ヲ 付ケテ 奇麗ニ 化粧シタカラ 愛嬌ガアリマス/뎌계집은 粉을 발나 곱게 단장ᄒᆞ얏스니 嬌態가 잇습니다(38상단).

(56) 患者/病人. 病院デハ 凡ノ患者ヲ 收容シテ 治療サセマス/病院에셔ᄂᆞᆫ 왼ᄀᆞᆺ 病人을 收容ᄒᆞ야 治療식히옵니다(247하단).

(57) 希望/所望. 希望ノ通ニ 世話シテ下サイ/所望ᄃᆡ로 周旋ᄒᆞ야주시오(58상단).

이 중에서도 특히, '拷問/刑訊, 交際/相從 또는 交接, 金融/錢政, 當選/被薦, 道具/器具, 物品/物貨, 配達夫/分傳人, 費用/浮費, 非常-/ᄃᆡ단히 또는 非常히, 相談/相議 또는 論議, 洗濯/ᄲᅡᆯᄂᆡ, 小作人/作人 또는 半作人, 失敗/逢敗 또는 良貝 또는 랑ᄑᆡ 또는 失敗, 案內/引導, 營業/生涯, 外出/出入, 料理/飮食 또는 料理, 流行-/時體로 닙다 또는 時體다 또는 셩ᄒᆞ다, 自由-/任意-, 注文/맛초- 또는 긔별ᄒᆞ- 또는 注文, 注意/操心, 또는 조심, 滯在/逗留, 出願/請願. 品行/行實 또는 힝실, 必要-/所用 또는 要緊- 또는 必要-, 玄關/마루,[15] 現金/卽錢 또는 直錢, 化粧/단장, 希望/所望'과 같은 대역은 주목되는 존재들이다. 여기에는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나 고유어 또는 신조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어 '交際, 非常-, 失敗, 料理, 注文-, 必要-'는 어쩌다 한 두 번 아니면 몇 번 정도만 국어에 쓰인 일이 있을 뿐, 상대적으

14) '親切'은『한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통적 한자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의 대역으로 판단할 때 일본어 '親切'에 대응되는 국어단어로서는 '親切'보다 오히려 '多情'이 의미상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15) 일본어 '玄關'이 국어에서 '마루'로 대역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한옥에는 '玄關'에 해당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말을 구태여 찾는다면 '마루'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는 훨씬 적게 나타나며, 일본어 '自由-, 流行-, 注意'는 아예 국어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로써 이들이 국어에 간섭을 일으킨 과정에도 단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 위에 예시된 일본어의 대부분은 결국 개화기 이후의 국어에 수용되었으나, 한동안 저항을 보였던 전통적 국어단어들은 그후 입지가 매우 허약해지거나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추정된다.

다음에 보이는 일본어도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국어단어처럼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獨習日語正則』(1907)에서는 이들 일본어도 전통적 국어단어로 대역되고 있어 국어의 저항이 광범한 영역에 걸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실상의 일부를 가나다 순으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문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내세우기로 한다.

(ㄱ행) 勘定/細音.[16] 御得意ノ 御方ニハ 勘定ヲ 月末ニ 戴キマス/단골兩班의게는 細音을 月終에밧습니다(164상단). 隔月ニ/ᄒᆞᆫ둘건너(57하단). 苦悶シテ/ᄋᆡ쓰고(62하단-63상단). 故意ニ/부러(63상단). 工夫/計策(62하단). 罫紙/인찰지(265상단).[17] 機敏/敏捷(174하단). 期限マデハ/限定前에는(60하단). 喫烟/吸烟(78하단, 116상단).

(ㄴ행) 落着/結尾(71상단). 內外/안팟. 男女合セテ 百人內外デセウ/男女合ᄒᆞ여셔 百名안팟이지오(58상단-하단).

(ㄷ행) 當分ノ間/ᄒᆞᆫ동안(105하단).[18] 當時/近日(158상단). 當地/여긔(158하단). 當直/當番. 今晩ハ 誰ノ當直デスカ/오ᄂᆞᆯ밤은 뉘當番이오닛가(69상단). 大名/諸侯. 大名ノ家ニハ/諸侯의집에는(37하단).[19] 大捷/勝戰(25하단-26상단). 盜難/盜賊(105하단). 途中デ/길에셔, 路上에서. 阿部樣ニハ 先刻途中デ 逢ヒマシタ/阿部公은 앗가 길에셔 맛낫습니다(48상단), 意外ニ 途中デ出逢マシタカラ/意外에 路上에셔 맛낫스니(48하단-49상단). 到着/왓스니. 荷物ガ 到着シマシタカラ/짐이 왓스니(256상단).

(ㅁ행) 盲人/판슈(38상단). 明瞭/分明. 望遠鏡デ 見レバ 幾位遠クテモ 明瞭ニ見エマス/望遠鏡으로 보면 아모리 멀드릐도 分明히 보이옵니다(233상단). 謀叛/叛逆(103상단). 木綿/白木, 綿花, 무명. 木綿 麻 紬類ノ外何モ アリマセン/白木 布 綿紬等屬外에는 아모것도 업습니다(161하단), 米國産ノ木綿モ 適當デアリマス/米國産의綿花도 適當ᄒᆞ오(187상단), 木綿デ 着物ヲ 拵ヘレバ 丈夫デス/무명으로 옷을 지으면 튼튼ᄒᆞ오(216상단).[20]

(ㅂ행) 繁昌/繁盛. 豊年ノ爲ニ 商況ハ 到ル處 繁昌デアリマス/豊年ᄉᆞᄅᆞᆷ에 商況은 到處에繁盛ᄒᆞ오(182하단). 辨濟期間/勘報期限. 借金ノ 辨濟期間ガ 過ギタノデ/債錢의 勘報期限이지ᄂᆞᆺ스니(131하단). 報酬金/酬勞金(131상단). 普通/通常에(249하단). 本給/本俸(126상단). 附近/近

---

16) '셰음'이라는 고유어를 한자어로 잘못 인식한 데서 나온 표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셰음(173상단, 177하단, 182상단)'처럼 올바르게 표기된 쪽이 오히려 더 많다.

17) 『한불』에는 '인찰 引箚'이라는 표제어에 'Trait dans une page de livre, encadrement en filet un livre'라는 풀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인찰지'의 올바른 한자표기는 '印刷紙'일 것이다.

18) 현대 국어에는 '當分間'으로 나타난다.

19) '大名'은 일본의 고유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諸侯'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제도나 문물을 소개할 경우, 해당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간접화법식으로 인용하는 수도 있다. 가령, 日本ニハ 昔シ 大名ト云フ者ガアツテ 諸國ニ割據シテ居リマシタ/日本에는 녯적에大名이라ᄒᆞ는것이이셔諸國에割據ᄒᆞ야 이셧습니다(108상단), 馬ヲ御スル人ヲ 馬丁或ハ別當ト云ヒマス/말어거ᄒᆞ는사ᄅᆞᆷ을 馬丁이나 別當이라 ᄒᆞ옵니다(38하단), 韓國軍隊ノ下士ハ 日本軍隊ノ伍長トイフモノニ當ルデセウ/韓國軍隊의下士는 日本軍隊의伍長이라 ᄒᆞ는것과 相當ᄒᆞ지오(121상단)의 국어대역문에 나타나는 '大名, 馬丁, 別當, 伍長'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들은 차용어가 아니고, 타국의 제도나 문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국어에 일시적으로 쓰인 경우로서 훗날 차용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어형이라고 볼 수 있다.

20) 결국, 일본어 '木綿'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白木, 綿花, 무명'과 같은 국어가 대응되고 있는 셈이다.

處(29상단).

(ㅅ행) 相場/時勢, 시셰. 物品ノ 上場ヲ 見テ/物貨時勢를 보아셔(174하단), 大豆ノ上場ハドウデスカ/콩시셰는 엇더하오닛다(182상단). 旋風/廻風(21상단). 細工/手工(189하단). 燒失/燒盡(28하단). 始終/恒常(47상단), 항샹(77상단, 77하단, 246상단), 홍샹(79하단), 항상(154하단, 207하단). 室內ニ 汚穢物ガ アリマスレバ/집안에 汚穢物이 잇스면(208상단-하단), 室內ヲ奇麗ニ 掃除シテカラ 石炭酸デ 消毒シナサイ/집안을 씻긋ᄒᆞ게 쓸고 石炭酸으로 消毒ᄒᆞ시오(241상단).

(ㅇ행) 安置/奉安. 日本カラ 佛像ガ 到着シマシテ 京城本願寺ニ 安置シマシタ/日本셔 佛像이 到着ᄒᆞ야 京城本願寺에 奉安ᄒᆞ얏습니다(84하단-85상단), 御寺ニハ 佛像ヲ 安置シマス/졀에는 부처님을 奉安ᄒᆞ옵니다(93상단). 十時/열점. 每日午前十時頃出勤致シマス/每日午前열졈쯤 仕進ᄒᆞ옵니다(91상단). 用心/操心(43상단). 위에서 본 '注意/操心, 조심' 참조. 用意/準備. 豫メ 用意シテ 置カナケレハ(バ의 잘못인 듯)ナリマセヌ/미리 準備ᄒᆞ여 두지안으면 안되오(48상단-하단).

(ㅈ행) 殘酷デ/씀씩ᄒᆞ야셔(15상단). 切迫/貴ᄒᆞ-, 極難ᄒᆞ-. 金融ガ 餘程 切迫シテ 居リマス/錢政이 大端히 貴ᄒᆞ옵니다(159하단), 金融ガ 切迫デ 商賣人ハ 非常ニ 困ツテ居マス/錢政이 極難ᄒᆞ여 商賈들이 非常히 민망ᄒᆞ게 지ᄂᆡ옵니다(172상단), 金融ガ 切迫テ(デ의 잘못인 듯) 物價ガ 俄ニ 下落シマシタ/錢政이 極難ᄒᆞ야 物價가 갑작이 써러졋습니다(180하단). 定刻ノ通リ/時間ᄃᆡ로. 皆樣ハ 定刻ノ通リ 御出下サルコトヲ 御願ヒ申シマス/여러분은 時間ᄃᆡ로 오시기를 바라옵니다(67상단-하단), 定刻ニ/定ᄒᆞᆫ時間에. 宴會ノ招待狀ヲ 受ケマシタカラ 定刻ニ行カ子バナリマセヌ/宴會의 招待狀을 바닷스니 定ᄒᆞᆫ時間에 가야ᄒᆞ겟습니다(72상단), 持參シテ/가지고와셔(67하단). 盡力/힘쓰-. 出來丈 盡力致シマス/되도록 힘쓰겟소(41하단).

(ㅊ행) 借金/債錢(131하단, 133하단). 단, '借金/빗'과 같은 대역도 나타난다. 借金ヲ 返サナイ爲ニ 訴狀ヲ 提出シタサウデス/빗을갑지아니ᄒᆞᆫ ᄭᆞ둙에 訴狀을提出ᄒᆞ엿다ᄒᆞ오(132하단). 天氣/日氣, 일긔. 天氣ガ 曇ツテ/日氣가 흐려셔(18하단), 天氣ガ寒イカラ/日氣가 치우니(213하단), 今日ハ結搆ナ御天氣デゴザイマス/오늘은 훌늉ᄒᆞᆫ일긔올시다(91상단), 天氣ガ 寒クナルト/일긔가 치워지면(91하단). 親類/親戚(37상단).

(ㅎ행) 下落/써러지-. 金融ガ 切迫テ(デ의 잘못) 物價ガ 俄ニ 下落シマシタ/錢政이 極難ᄒᆞ야 物價가 갑작이 써러졋습니다(180하단). 旱魃/가물(19하단).

일본어의 대역어로 쓰인 전통적 한자어나 고유어 중에는 주목되는 것들이 많음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勘定/細音, 機敏/敏捷, 喫烟/吸烟, 落着/結尾, 當直/當番, 盲人/판슈, 辨濟期間/勘報期限, 報酬金/酬勞金, 相場/時勢 또는 시셰, 旋風/廻風, 細工/手工, 燒失/燒盡, 安置/奉安, 十時/열졈, 定刻ニ/定ᄒᆞᆫ時間에, 持參シテ/가지고와셔, 下落/써러지-, 旱魃/가물'과 같은 사례가 거기에 속한다. 이로써 개화기에는 일본어의 간섭에 대한 국어의 저항이 상당한 세력으로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2. 訓讀 漢字語에 대한 抵抗

이번에는 단어의 구성요소인 개별형태소 하나하나가 모두 훈독되거나, 그 일부가 훈독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일본어 또한 현대국어라면 어형상으로나 의미상으로 국어단어와 다름없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곧 일본어와는 다른 전통적 국어어형이 대역어로 한동안 쓰이면서 일본어의 간섭에 저항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價値[ne-uti]/값. 教育ノ價値ハ/教育의갑슨(145상단).

(2) 建物[tate-momo]/家屋. 土地建物證明規則ハ/土地家屋證明規則은(134상단).

(3) 見本[mi-hon]/看色. 見本ヲ 持テ 來マセウ/看色을 가지고 오리다(167상단).

(4) 貸出[kasi-dasi]/放債. 銀行デ 貸出スデセウ/銀行에셔 放債ᄒᆞ겟지오(159하단).

(5) 突然[ikinari]/瞥眼間. 出拔ニ 一人ノ曲者ガ出ルカラ突然捻ジ伏テ 漸ヤク取リ押ヘタガ遂逃シテ 仕舞ツタ/不意에 殊常ᄒᆞ놈 ᄒᆞ나히 나오기로 瞥眼間 휘둘너 걱구러쳐서 겨오 잡앗다가 終乃 노노('노'가 잘못 중복된 듯)쳣('쳐'의 잘못인 듯)버렷소(68하단).

(6) 買上ゲル[kahi-ageru]/買收ᄒᆞ다. 京釜鐵道モ 日本政府デ 買上ゲマシタカラ/京釜鐵道도 日本政府에서 買收ᄒᆞ얏스니(122하단).

(7) 密語イテ[sasayaite]/귀속을 ᄒᆞ고. 何事カ密語イテ 居リマス/무슨말인지 귀속을ᄒᆞ고 잇소(60하단).

(8) 小賣[ko-uri]/散賣. 小賣ハ 致シマセン/散賣ᄂᆞᆫ 아니ᄒᆞᆸ니다(162하단).

(9) 受取[uke-tori, uke-toru]/領受, 밧다. 明日頃 受取リニ 行マセウ/ᄂᆡ일쯤 領受ᄒᆞ러 가겟소(256상단), 粗未('末'의 잘못)ナ物デスガ 何卒受取ツテ下サイ/변변치아니ᄒᆞᆫ物件이나 밧으시기를 바라ᄋᆞᆸ니다(54하단).

한편, '受取書[uketorisyo], 受取證[ukerorisyau]/領受證'와 같은 대역도 나타난다. コノ受取書ニ 公ノ印ヲ 捺シテ 下サイ/이領受證에 老兄에圖章을 찍어주시오(176하단), 金ヲ 受取ツタ跡ハ 受取證ヲ 交附シナサイ/돈을밧은뒤에은('ᄂᆞᆫ' 또는 'ᄂᆞᆫ'의 잘못) 領受證을 交附ᄒᆞ시오(177상단).[21]

(10) 場所[ba-syou]/處所. 灌漑ノ乏イ處ニハ 豫メ 水ヲ溜メテ置ク場所ヲ 設ケテ 旱魃ノ備ヲ シナケレバ イケマセン/灌漑가 不足ᄒᆞᆫ곳에ᄂᆞᆫ 미리 물을 뎌축ᄒᆞᄂᆞᆫ 處所를 민들어셔 旱魃의防備를 ᄒᆞ지아니ᄒᆞ면 안되오(187상단), 凡テノ道具ノ配置ハ 皆 場所ヲ 定メテ 置クンダヨ/온갓器具의配置ᄂᆞᆫ 다 處所를 定ᄒᆞ야 둘것이다(244하단).

(11) 地主[ti-nusi]/田主. 地主ト 小作人トノ間ニ 利益分配ハ/田主와 作人間의 利益分排ᄂᆞᆫ(184하단).

(12) 織物[ori-mono]/필육. 朝鮮デ 出來ル 織物ハ 何ナモノガ アリマスカ/朝鮮셔 나ᄂᆞᆫ 필육은 엇던 것이 잇습닛가(161상단).

(13) 請負者[uke-ohi-sya]/都給者. 彼等ハ 皆請負者ノ連中ダカラ/그사ᄅᆞᆷ들은 다 都給者의 一派닛가(54하단).

(14) 取扱ヒ[tori-atukahi]/處理. 代書所ヲ 設ケテ 登錄訴狀等ヲ 取扱ヒマス/代書所를 셜시ᄒᆞ고 登錄訴狀等을 處理ᄒᆞᆸ니다(133하단), 郵便取扱規則ヲ 辨子バ ナリマセヌ/郵便處理ᄒᆞᄂᆞᆫ 規則을 아지못ᄒᆞ면 안되오(258하단).

(15) 取調ベテ[tori-sirabete]/査實ᄒᆞ야(119상단-하단), 加害者ヲ 引致シテ 取調マシタ處ガ/加害者를 引致ᄒᆞ야 査實ᄒᆞᆫ즉(129하단), 先日 捉ヘタ强盜ヲ 取調ベマスト/前日 捕縛ᄒᆞᆫ强盜를 査實ᄒᆞᆫ즉(131하단), 人ヲ 恐迫シテ 金ヲ 奪取ツタ者ハ 酷ク取調ベテ 下サイ/사ᄅᆞᆷ을 威脅ᄒᆞ야 돈을奪取ᄒᆞᆫ者ᄂᆞᆫ 嚴히 査實ᄒᆞ야 주시오(132하단).

(16) 取締リマス[tori-simarimasu]/監檢. 憲兵ガ 軍人ヲ 嚴重ニ取締リマス/憲兵이 軍人을 嚴重히監檢ᄒᆞᆸ니다(110하단), 此頃宮中雜輩ノ取締ハ嚴シイモノデス/이사이 宮中雜輩의 監檢

21) 다만, 이 때의 '領受證'에 대한 현대국어 한자표기는 '領收證'이다.

은 嚴ᄒᆞ옵니다(120상단).

(17) 打開ケテ[uti-akete]/ᄂᆡᄂᆞᆺ코, 펴ᄂᆡᄂᆞᆺ코. 何モ 隱サズニ 打開ケテ オ話シナサイ/아모것도 隱諱치마르시고 ᄂᆡᄂᆞᆺ코 말ᄉᆞᆷᄒᆞ시오(53하단), ソウ隱サズニ 打開ケテ 云フテ 下サイ/그리 隱諱치말고 펴ᄂᆡᄂᆞᆺ고 말ᄉᆞᆷᄒᆞ시오(57하단).

(18) 品切[sina-gire]/物件이 동나-. 品切ニ ナツテ 價段ガ 俄ニ 上リマシタ/物件이 동나셔 갑이 갑ᄌᆞᆨ이 올낫ᄉᆞᆸ니다(170상단).

(19) 荷物[ni-motu]/짐. 荷物ハ 郵便ト 違ヒマシテ 遲レマス/짐은 郵便과 달나셔 더ᄃᆡ옵니다(164하단-165상단), コノ荷物ヲ 荷車デ 運搬スレバ/이짐을 구루마로 移運ᄒᆞ면(175하단), ソノ荷物ハ 肩ニ 擔イデ 行ケバ/그짐은 억개에 메이고 가면(208하단), 端艇デ 荷物ヲ 波止場ニ 運ビマス/三板으로 짐을 埠頭에 옴기옵니다가('가'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임)(252상단), 荷物ハ 停車場ニ 卸シマシタ/짐은 停車場에 부렷ᄉᆞᆸ니다(253상단), 今度ノ船便デ 荷物ガ 到着シマシタカラ/이번船便으로 짐이 왓스니(256상단).

여기서도 일본어의 간섭에 저항한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나 고유어를 찾을 수 있다. '見本/看色, 貸出/放債, 小賣/散賣, 場所/處所, 地主/田主, 織物/필육, 請負者/都給者, 取扱/處理, 荷物/짐'와 같은 대역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예시된 일본어의 대부분은 개화기 이후 현대국어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 중에는 '看色, 放債'처럼 폐어화의 길을 걸은 사례도 적지 않다. 한자로 표기되는 일본어형들은 얼핏 한자어처럼 인식되기 쉬운 데다가 특별한 이질감이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국어에 수용될 수 있었다고 풀이된다.

3. 接辭用 漢字形態素에 대한 抵抗

개화기의 일본어에는 接辭用 한자형태소에 의한 파생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대거 국어에 거의 그대로 차용되었으나 일부는 일본어와 다르게 대역된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接辭用 한자형태소 중에도 일본어의 간섭에 대한 국어의 저항이 부분적으로 있었음을 뜻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그러한 실상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1) '-高[-daka<-taka]/-額'. 今年ハ 豐年デスカラ 例年ノ收穫高ニ 較ベテ 見マスレバ/今年은 豊年이니 平年秋收額에 比ᄒᆞ여보면(186상단). 일본어 '收穫高'에 쓰인 접미사 '-高'가 국어에서는 '-額'으로 대치되었다.

(2) '-等/-等' 또는 '-等/-等屬, -等地, -들'. 복수접미사 '-等'은 국어에 '-等'으로 대역되기도 하였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우선, '-等/-等'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 汽車濕船等ハ/火車汽船等은(255하단), 巡査等ガ/-等이(100상단), 地理歷史等ガ/-等이(183하단), 硫酸鐵等ガ/-等이(250하단-251상단), 水雷艇等ガ/-等이(251하단-252상단), 違警罪等ノ/-等의(133상단), 主事等ヲ/-等을(107상단-하단, 133하단), 御宮等ニ/-等에(93상단), 城津等デス/-等이오(25하단). 이에 대하여 '-等/-等屬, -등쇽'으로 대역된 경우. 着物等ハ/衣服等屬은(219하단), 斥候兵等ガ/-等屬이(114상단), 牛皮等ガ/-等屬이(159상단), 田地等ヲ/-등쇽을(65상단), 團扇等ヲ/부치등쇽을(189하단), 郵便電信等デ/-등쇽인ᄃᆡ(261상단), 牛皮等デアリマス/-等屬이올시다(182하단). 다만, 지명 뒤에서는 '-等/-等地'로 대역된 경우도 있다. 京城 平壤等ニ/京城 平壤等地에(110하단), 橫須賀 佐世保 吳等デアリマス/橫須賀 佐世保 吳等地올시다(255하단). 또한,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는 '-等/-들'로 대역되기도 하였다. 政治家等ハ/政治家들은

(115상단), 書生等ハ/書生들은(149하단). 그러나 '城鎭等' 또는 '巡査等, 主事等'처럼 일본어에 나타나는 '-等'이 그대로 국어에 옮겨진 사례도 있으므로 지명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라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일본어 접미사 '-等'은 국어대역에서 유동성을 보이는 것이다.

(3) '-類/-類' 또는 '-類/-等屬'. 일본어 '-類'가 국어에서 '-類'로 대역된 경우. 穀類ノ/穀類의(20상단), 金巾類ノ/洋木類의(158상단), 獸ノ類デアリマス/즘싱의類올시다(196하단-197상단). '-等屬'으로 대역된 경우. 野菜類ハ/野菜等屬은(161상단), 紬類ノ外/綿紬等屬外에는(161하단). 그러나 '軒端等ニ/쳠하끗 ᄀᆞᆺ흔ᄃᆡ(198상단)'처럼 전혀 다른 대역도 있다. 이들을 통해서 일본어 접미사 '-類' 또한 국어대역에서는 유동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滿-/똑-'. 滿五歲ニ 成リマシタ/똑다셧살 되엿습니다(147하단). 일본어 '滿五歲'에 포함된 접두사 '滿-'이 국어에서는 '똑-'으로 대치되었다.

(5) '無-/의역형식'. 無責任ノコトヲ/당치안은 말을(74하단). '責任'은 『한불』에 이미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통적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파생어인 '無責任'은 국어에 수용되지 못하고 의역으로 처리되었다.

(6) '-匁[-monme<-匁目]/-兩重'. コノ小包ハ 正味 二百三十匁('匁'의 잘못) 有リマス/이小包는 實量 二十三兩重이 되오(261하단).

(7) '不-/不-' 또는 '不-/의역형식. 不公平ナコトヲ 云フカラ/不公平ᄒᆞᆫ말을ᄒᆞ니(81하단), 不動産デモ 抵當ニ 取リマスカ/不動産이라도 典當을 잡습닛가(159하단).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어 '不-'의 파생어 가운데에는 '不公平, 不動産'처럼 국어에 그대로 수용된 사례도 더러 있으나 똑같은 유형의 파생어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의역형식으로 국어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不健康デスガ/健康치못ᄒᆞ나(34상단). 不景氣デゴザイマス/時勢가 업습니다(158상단). 不經濟デス/經濟가 못되오(45상단), 不經濟デセウ/ᄒᆡ롭소(222상단). 不自由デス/不便ᄒᆞ오(65하단, 221하단). 證據不充分デ/證據가 不明ᄒᆞ야(129하단). 결국, '不-'의 파생어 가운데에는 국어에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8) '-本/-冊'. 小說本ガ 机ノ上ニ 置イテアルカラ/小說冊이 冊床우에 노혀잇스니(264상단).

(9) '-屋/-屋' 또는 '-屋/-房, -所, -業, -匠, -店, -젼, -집'. 일본어에는 훈독으로 쓰이는 '-屋'의 파생어가 많은데, 그중에서 국어에 수용된 경우는 '下宿屋(145하단, 146상단)'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仕立屋/裁縫房(215상단), 印刷屋/印刷所(263상단, 265상단-하단), 料理屋/料理業(177하단), 指物屋/小木匠(241하단), 陶器屋/陶器店(181상단), 散髮屋/理髮店(210상단), 瀨戶物屋/사긔젼(242하단), 吳服屋/드틈젼(216하단), 材木屋/쟝목젼(242하단). 菓子屋/菓子집(228하단), 寫眞屋/寫眞집(188하단), 二階屋/二層집(232하단), 平屋/평집(237상단). 이처럼 일본어 '-屋'의 파생어 또한 그때그때 국어로 '-房, -所, -業, -匠, -店, -젼, -집' 등으로 옮겨져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10) '-服/-옷'. 私ハ 朝鮮服ガ 好デス/나는 朝鮮옷을 조하ᄒᆞ오(218하단).

(11) '-用/-件'. 防寒用トシテ 一ツ 拵ヘマセウ/防寒件으로 ᄒᆞ나 만듭시다(168상단). 일본어 '防寒用'에 쓰인 접미사 '-用'이 국어에서는 '-件'으로 대치되었다.

(12) '-人/-人' 또는 '-人/-사ᄅᆞᆷ'. '-人/-人'의 경우. 西洋人(58상단, 221상단), 日韓人(61상단), 外國人(69하단), 犯罪人(100상단), 支配人(171상단, 179하단). '-人/-사ᄅᆞᆷ'의 경우. 外國人/外國사ᄅᆞᆷ(148하단), 日本人/日本사ᄅᆞᆷ(150하단, 154상단-하단), 支那人/淸國사ᄅᆞᆷ(187상단, 217하단-218상단, 264하단), 毛唐人/西洋사ᄅᆞᆷ(212상단), 朝鮮人/朝鮮사ᄅᆞᆷ(226상단, 226하단).

(13) '-揃[-sorohi]/-벌'. 此ノ 寸法ヲ 持テ 往ツテ 洋服ヲ 一揃 誂ヘテ 來イ/이見樣을 가지

고가셔 洋服 ᄒᆞᆫ벌 맛초고 오ᄂᆞ라(218하단).

(14) '-組[-kumi]/-組' 또는 '-組/-벌'. 消防組(123상단). 다만, '-組'가 다른 형태로 대역된 것도 있다. フロツコート一組[iqkumi]ヲ宜ク 仕立テ下サイ/후록코ㅡ트 ᄒᆞᆫ벌 잘 지어 주시오(166상단).

(15) '-造[-dukuri<-tukuri]/-製, -집'. 煉瓦造ノ二階屋ヲ 建テマシタ/煉瓦製의二層집을 지엇습니다(232하단), 煉瓦造ノ瓦葺ノ平屋デス/벽돌집에 기와덥흔 평집이오(237상단). 일본어 '煉瓦造'의 접미사 '-造'가 국어에서는 한번은 '-製'로, 또 한번은 '-집'으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건 일본어 접미사 '-造'의 파생어는 국어에 부자연스러운 존재였음을 알려준다.

(16) '-製/-所産'. コノ時計ハ 銀側デアルケレドモ 瑞西製デアリマス/이時計ᄂᆞᆫ 銀짝지오만은 瑞西所産이올시다(238하단). 일본어 '瑞西製'에 포함된 접미사 '-製'가 국어에서는 '-所産'으로 대치되었다. 바로 위에 '煉瓦造/煉瓦製'와 같은 대역이 나타나므로 접미사 '-製'가 국어에 쓰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접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어 접미사 '-産'은 국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米國産ノ木綿モ 適當デアリマス/米國産의綿花도 適當ᄒᆞ오(187상단).

(17) '-株[-kabu]/-股'. 일본어 株式(168하단), 株式會社(177하단)는 국어에 그대로 수용될 수 있었으나 일본어의 數量詞로 쓰인 '-株'는 국어에서 '-股'로 대역되었다.[22] 一株에 五十圓デスガ/一股에 五十圓이나(169상단), 私モ 三四十株 買ヒマセウ/나도 三四十股 사겟습니다(170하단), 最早 七八千株を 募集シマシタ/발셔 七八千股를 募集ᄒᆞ얏습니다(171상단).

(18) '-割[-wari]/-條, -分之數'. 十分率을 나타내는 일본어 接尾辭 '-割'은 국어에 다음과 같은 의역으로 나타난다. '一割/拾一條'(163하단), '二割程/十分之二'(186상단).

(19) '-夾[-basami<-hasami]/-틀'. 新聞ガ 來タラ 新聞夾ニ 直グ 夾ンデ置ケ/新聞이 오거든 新聞틀에 곳 끼여두어라(244상단).

이처럼 접두사 '不-', 접미사 '-等, -類, -屋, -人, -組' 등에 의한 파생어들은 국어대역에서 유동성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접두사 '滿-, 無-', 접미사 '-高, -用, -造, -株, -割' 등에 의한 파생어는 국어대역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들이 유동성을 보이거나 국어에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국어표현으로서 자연스럽지 못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국어 같으면 '不景氣, 不自由, 不充分, 無責任, 一割, 二割' 또는 '收穫高, 防寒用, 朝鮮人, 煉瓦造, 一株' 등의 경우, 국어단어로서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각기 '時勢가 없다, 不便ᄒᆞ다, 不明ᄒᆞ다, 당치않은, 拾一條, 十分之二'와 같은 의역형식이나 '收穫額, 防寒件, 朝鮮사ᄅᆞᆷ, 煉瓦製, 一股'처럼 일본어와는 다른 접미사로 대역된 것은 국어로서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 또한 일본어의 간섭에 대한 국어의 저항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개화기의 국어와 일본어의 접촉으로 인한 간섭 과정에는 당시인들의 무의식적 문법(어휘목록) 속에서 우러난 자국어의 저항이라는 절차가 일시적이나마 살아있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관심을 곤두세워 왔으나, 그 사이에 잠시 개입되어 나타났던 무의식적 저

22) 일본어 '株'[kabu](數量詞일 때에는 '-株'), '株式'[kabu-siki], '株券'[kabu-ken]은 중국어 '股'[gǔ](數量詞일 때에는 '-股'), '股子'[gǔzi], '股份'[gǔfèn], '股票'[gǔpiào] 등에 해당한다. 결국, 국어에 數量詞로 쓰인 '-股'는 곧 중국어에서 나온 것이다.

항이라는 단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저항 단계의 존재와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역사소설이나 역사드라마에 그 시대와 맞지 않는 엉뚱한 단어의 어형이나 의미가 어색한 모습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에 대한 타언어의 간섭에 맞설 수 있도록 자국어의 조어력 활용이나 번역어 창출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개화기에 모처럼 발휘되었던 기층 언어로서의 저항력이 우리의 무의식적 문법에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본고는 片茂鎭 외[공편](2005),『開化期의 日語學習書『獨習日語正則』 —解題・索引・硏究・原文—』(불이문화사) : 517-630에 실려 있는 필자의 논문(“宋 敏, 開化期의 新生語 硏究”) 일부를 발췌, 재정리한 내용임.

<참 고 문 헌>

宋 敏(1985), 派生語形成 依存形態素 ‘-的’의 始原,『于雲朴炳采博士還曆紀念論叢』, 高麗大 國語國文學硏究會, 285-301.

_____(1988), 日本修信使의 新文明語彙 接觸,『語文學論叢』7,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1989), 開化期 新文明語彙의 成立過程,『語文學論叢』8,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1992), 開化期의 語彙改新에 대하여,『語文學論叢』11,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1998), 開化期 新生漢字語彙의 系譜,『語文學論叢』17,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1999), 開化初期의 新生漢字語 受容,『語文學論叢』18,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2000), 開化期 國語에 나타나는 新文明 語彙,『語文學論叢』19,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2001),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1),『語文學論叢』20,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2002),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2),『語文學論叢』21,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_____(2003),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3),『語文學論叢』22,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New York. Reprint(1963), Mouton, The Hague.

馬西尼 著/黃河淸 譯(1997),『現代漢語詞匯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硏究, 上海 : 漢語大詞典出版社. [원서명] Masini, F.(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o. 6, Berkeley : Univerisity of California.

劉正埮・高名凱・麥永乾・史有爲(1984),『漢語外來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楳垣實(1944),『增補日本外來語の硏究』, 靑年通信出版部.

_____(1972),『增補外来語辞典』, 東京堂出版.

斎藤毅(1977),『明治のことば』, 講談社.

佐藤亨(1983),『近世語彙の硏究』, 桜楓社.

_____(1986),『幕末・明治初期語彙の硏究』, 桜楓社.

鈴木修次(1981),『文明のことば』, 広島:文化評論出版.

惣郷正明・飛田良文(1986),『明治のことば辞典』, 東京堂出版.

槌田満文(1983),『明治大正新語・流行語』, 角川書店.

広田栄太郎(1969),『近代訳語考』, 東京堂出版.